

코로나19 재택치료·확산 예방 총력

무주군, 자가격리·재택치료 전담공무원제 일원화… 확진자·공무원 매칭 전담 관리

무주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접촉자 관리기준(격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자가격리와 재택치료로 이원화 시켰던 전담공무원제를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공무원은 총 295명으로 무주군은 확진자(경증, 무증상자) 및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무원과 매칭을 시켜 전담 관리(1주일)에 들어간다.

매칭 당일 대상에 따라 자가격리(겔·분무소독제, 마스크, 분리수거 봉투 등) 치료키트(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등의 물품을 거주지에 전달하고 하루에 2번 체온 및 증상 등 자가진단 결과(이상 유무 확인)를 전화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이탈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당부(방문 확인)를 비롯해 재택치료 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등 민원 처리를 돋는다.

군청 공무원들은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몸이 힘든 것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재택치료에 들어간 주민들 모두가 큰 고통이나 불편 없이 격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월 10일 현재 무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74명으로 이중 39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2명은 군에서 운영하는 일상회복 안심숙소(이하 안심숙소)를 이용했다. 29명은 해외입국 등으로 자가격리 중이다.

안심숙소(무주반딧불 청소년수련원)는 재택치료자 또는 동거인을 분리할 수 있는 곳으로 입소대상은 다(多)인 가족 중 1인 확진 시 자택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환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밀접접촉(확진자와 분리를 원할 경우) 및 미접촉(확진자의 재택치료로 인해 임시 거주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족(동거인) 등이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재택치료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으로 건강관리반(병상

대기관리)과 이송반, 격리관리반(전담 공무원 12명)에서 최상의 의료대응체계를 구축·실행해 나가고 있다.

안심숙소 이용자에 대한 이송, 상시 모니터링, 시설보완, 식사 및 필요물품(침구류, 의료키트 및 식료품 등)지원, 폐기물처리, 협력 약국 지정 등 관리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무주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와 의료지원, 안전재난, 환경위생, 시설사업소 등이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 재택치료 추진단 김희옥 단장(부군수)은 “확진자 의료체계가 셀프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려도 크지만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쟁기고 안전을 살펴나가고 있다”며 “우리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와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기동하는데 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12월 31일까지 지역의 0~7세 아동들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실시한다.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 실시

장수군, 0~7세 아동 그림책·가이드북·독서가방 등 제공

장수군은 12월 31일까지 지역의 0~7세 아동들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실시한다.

서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이다.

군은 꾸러미 제공 외에도 북스타트 책과 함께하는 동화 구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장수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도서관 팀(063-350-2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흥삼·인삼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10일 (재)진안흥삼연구소 회의실에서 진안군의 흥삼·인삼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및 관내 판매장 활성화의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 농축산유통과 정현우 과장을 비롯해 김태영 진안흥삼연구소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김정배 흥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장, 최병준 품질인증협동조합회장 등 진안군 인삼, 흥삼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종사자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 따라 국내·외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증진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됐지만 관내 인삼, 흥삼의 수익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삼·흥삼 판매장 수익 향상, 온·오프라인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및 판로 확대, 제품들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노후 빙집 리모델링 취약계층에 보금자리 제공

무주군은 올해도 관내 노후 빙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22년 희망하우스 빙집재생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4월말까지 모집한다.

빙집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빙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2천만 원(자부담 5% 이상)을 지원해 임차인에게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 주택은 6개월 이상 공가의 단독주택이며, 접근성과 노후도, 소유권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임대회원자는 건축물 소재지읍·면사무소 및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3-320-2486)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내일창업 아카데미' 운영

성공 창업 돋기 위해 전문가 특화 강의 진행

진안군은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2년 진안 내일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11명의 (예비)창업자들과 함께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13시~16시)에 총 16회에 걸쳐 청년공간에서 진행된다.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의 기초부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창업 트렌드를 쉽

게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장트렌드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매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화된 강의로 준비해 창업시장의 이해, 창업 IT 교육, 시장성 검토, 진안군 상권분석 및 오프라인 창업실무, 온라인 마케팅전략, 정부 창업사업과 사업계획서 멘토링, 창업에 필요한 세무회계 등의 교육과정으로 알차게 구성한다.

특히 총 48시간 중 80% 이상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혜택인 아카데미 수료증과 함께 2022년에 추진될 진안군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가산점 5점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번 창업아카데미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며 “기존 창업자는 물론 창업예정자, 특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창업 분야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아카데미를 진행하니 청년들이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상품화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신속항원검사·진료 가능한 코로나19 치료병·의원 운영

장수군이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위해 관내 병·의원을 코로나19 치료병·의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미크론 우세종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관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2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장수읍 박승민내과의원과 동아기정의학과의원 2곳이며, 장수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도 언제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



다.
지정 병·의원은 기침, 가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환자가 방문하면 신속항원검사와 진단, 처방 등이 가능

하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게 되며, 음성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혼잡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2년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5개 과정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반인 ITQ 컴퓨터(엑셀, 과워포인트, 한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한식조리사,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 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반의 경우 향후 무주군립요양병원이 완공되면 전문 인력 수요에 대비해 지난해 대비 44% 증설, 운영될 예정이다.

횡인홍 무주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돋고, 진출할 수 있는 취·창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직업훈련 교육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063-322-5566)로 연락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